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만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8)

여기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도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분이 사는 곳에 매일 찾아가서 “대통령님, 사랑해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라고 적힌 큰 팻말을 들고 매일 한 달 동안 백악관 앞에서 있다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시켜서 “저 사람은 누구지? 무엇을 원하지?” 궁금해 하며 그의 사정을 알아내어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당신에 대하여 들었을 거라는 확신은 100%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렇게 매일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존재하십니까? 진정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한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진정한 진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나 마음의 문자를 보내신다면 100% 응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이런 식으로 처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으며 제가 아는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주어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으려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며, 한 달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려고 성경만 읽고, 친구들과 놀지 않고, 핸드폰 전원을 꺼 놓았습니다. 네 번째 금식하려던 주에 저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모든 것을 그만 두고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차, 내가 주를 찾다가 밖에서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을 때에 정결한 느낌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머리 위로 임하시는 것을 느꼈고, “You already got it.” “넌 이미 받았다.” 라는 작고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귀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 방언이요?” 하며 방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할렐루야를

외쳐서 방언을 받았다는 간증이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할렐루야를 다섯 번 외쳤더니 입에서 무언가를 뱉어 내야겠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내뱉는 순간, 제 입에서는 아랍어 같은 방언이 나오면서 저는 전기 같은 것이 제 심장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찾았을 때 온갖 영적 체험들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도 한 발자국 다가오시고, 오십 발자국을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도 오십 발자국에 대한 그대로의 보상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학력이나, 권력을 따져서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아 주십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분을 만날 생각을 마시고, 행하면 반드시 만날 것을 100%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직 낮은 마음으로 진실만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교만하게 “당신, 진짜야? 당신. 이리와 봐.”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분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지면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찾게 된 이유는 그렇게도 교만한 저의 삶의 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살에 미국에 와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3개월 만에 영어를 미국인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 덕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제가 천재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한국 중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초등학교 수준인 미국에서 하니 저는 제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중학교를 온갖 영광과 상들로 2년 만에 3등으로 졸업하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전교 1등을 차지하게 된 저는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저의 외삼촌이 저와 비슷한 나이에 미국에 와서 시카고 대학을 들어갔다고 하여 저도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매일 밤 5초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발 시카고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매일 기도하니,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일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바람에 전교 3등으로 밀렸지만, 3학년 때 전교 1등을 하던 여자아이가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어

다시 전교 2등이 되었습니다. SAT 1600점 만점에 세 번의 시험을 봐서 1150-1220점 밖에 안 되었던 저의 SAT 시험 점수와 학교에서 싸움으로 인한 3일 정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기도로 시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SAT 점수 1350이 넘어야 시카고 대학이 가능했고, 시카고 대학 같은 곳에서는 싸움으로 정학 당한 학생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학교 카운슬러를 일하게끔 하셔서 그는 저의 대학 지원서에 ‘이 학생이 정학 당한 때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하는 란에 “너를 믿는다.” 하며 그곳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시 머리를 길게 기르고 힙합바지를 입고 학교에 다녔으며 공부라고는 숙제만 하던 제가 시카고 대학을 가니, 시카고 대학 천재들 사이에서 성적표를 B, C, D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참 자칭 천재라고 교만했던 저는 새로 선물 받은 기타를 혼자 치다가 ‘나도 작곡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가 아닌 록밴드를 만들어서 스타가 되어서 성공하자.’는 마음으로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 후에 잘 되지 않는 밴드를 4년이나 붙잡고 온갖 돈 낭비, 시간 낭비와 나쁜 짓만 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으로 지역사회 대학을 다니다가 히스패닉 친구의 조언으로 저는 히스패닉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 세게 꽂혔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고 또 그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마다 모두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설교가 끝나고 “아니, 저에 대하여 아십니까? 저의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설교하시네요?” 라고 물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밤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할 것을 말해 주십니다.”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밤새 기도한다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시 길래 밤새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생각하며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교회에 계속 나가게 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밴드를 그만두어라.”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안 돼요! 여기에 제 젊음을 투자했습니다. 꼭 이것으로 성공해야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 제가 만든 밴드 친구들이 저의 음악이 싫다며 저를 쫓아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기타리스트 친구가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가득 찼지만, ‘그래, 그럼 그만두자. 어차피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라며 밴드를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혼란에 빠진 저는 “하나님, 밴드를 그만 두었습니다! 전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라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여

토요일마다 성경공부도 하러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살지?’ 생각하는 중, 친구의 동생이 갑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그래, 바로 시작하자!”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클럽에서 만난 여자 친구도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사귀고 있을 때, 그녀의 옛 남자 친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청혼하였다며 그녀는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차도 그 옛 남자 친구 것이었고, 그들이 한 5개월간 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때에 제가 나타나 사귀었던 거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깊은 상처를 받은 저는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친구와 놀아도 좀처럼 마음이 삭혀지지 않아서 어느 날 하나님께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녀에게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성경공부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마귀가 그녀를 데려가게 놔두었습니까?” 그러자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머리에 와 닿았습니다. “네가 그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순간 너무나 깜짝 놀란 저는 ‘아! 정말이구나.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돈을 벌자는 이유도,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이유도 다 이상형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자 하는 거였구나. 나의 인생 목표가 썩어서 없어질 흠 같은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그동안 사귀어왔던 많은 여자들이 하나같이 나의 마음만 아프게 했던 것은 그들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불렀으며,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여 오직 천국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저에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떠올랐고 저는 너무 죄스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다만 적당한 시기에 저의 배필을 주시옵소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만 찾겠다고 다짐하였고, 이후로 이렇게 하여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의 우상들 때문에 심히 마음고생하고 큰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100% 올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당시 록밴드와의 사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아프거나 세상을 맛보고 힘들거나, 나쁜 일들이 생길 때 비로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절망적이기 때문이지요. 끝이니깐요. 모든 일이 다 잘되어가고 있을 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며 비웃던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용감하지 못합니다. 그 많던 돈도, 좋던 명예도, 의사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끝이 오면 그제 서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만 헛되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던 솔로몬 왕은 우리의 삶이 바람을 쫓는 헛된 짓이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회의감과 무능력에 빠지는 상태가 될 때에는 그 무엇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삶에 만족이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태어난 목적을 위해 살 때에 보람된 것이지, 각자 원하는 대로 산 보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두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도 남의 것이 될 것이고, 그 크던 회사도 없어질 것이고, 그 명성 높던 이름도 잊혀질 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매일 그렇게 즐기던 쾌락도, 추억도 흠으로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것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도서 1:14)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던 자만이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땅에서 얻은 것은 다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니게 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삶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우상들이 다 깨지게 인도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저는 혼자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매일 죽고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소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